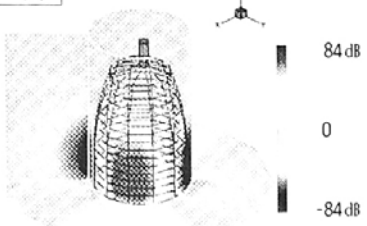


에밀레종 소리신비 돌기·울림통·맥놀이 '3중주'

주파수



에밀레종의 신비는 그림의 '질'은 색으로 표시된 두개의 음장영역(84dB)의 저주파수 음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했다. 두개의 주파수가 하나의 소리처럼 들리는 맥놀이현상이 소리의 신비.

천년의 소리를 지켜오고 있는 성덕대왕신종(일명 에밀레종·국보 제29호)의 신비의 소리는 종 상단부 등의 돌기와 맨 윗부분의 대나무 모양의 음관, 땅 속으로 소리를 전달하는 종각 및 부분의 울림통, 몸통부분에서 나오는 맥놀이 현상 등 여러 비밀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2일 국립경주박물관·고촌재단·종근당 공동 주최로 세종문

화회관에서 열린 '제2회 성덕대왕신종 국제학술대회'는 최근 안전진단과, 훼손방지를 위해 국립경주박물관이 전시실에 종각을 세워 특수 강화유리관에 전시기로 하는 등 성덕대왕신종 보호를 위한 일련의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사실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더욱 관심을 끌었다.

진용욱교수(경희대 전자)는 성덕대왕신종 음향분석결과 36개의 연

꽃형 돌기와 내면 상단부의 사발모양 돌기가 맑은 소리를 내는 주파수 특성을 띠며 해주는 요인이라 밝혔다. 또 신라의 동종이 그렇듯이 땅속 구멍이 모듬의 울림구조는 요소와 한국인의 전통사상을 음향공학적으로 오묘하게 결집한 결과물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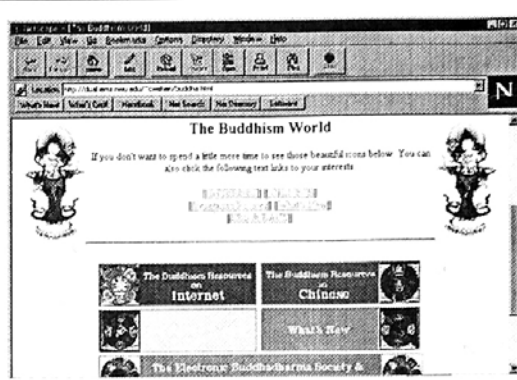
한국과학기술원 김양한 교수팀은 타종시 나타나는 '맥놀이' 현상인

이런 현상을 위로하고 지옥공생에게 극락세계 왕생을 기원하는 불교적 교리를 과학적으로 실증했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이어 진교수는 성덕대왕신종의 맨 윗부분인 음관을 모든 주파수가 골고루 빠져나가는 역할을 하는 등 안정된 소리울림을 촉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등 하늘과 땅, 인간에게 고루 전파되도록 시스템 공학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불교적

이라는 역사적 배경을 설명했다. 강우방씨(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실장)는 성덕대왕신종은 석굴암이나 불국사가 그렇듯이 단순히 조상숭배와 정치적 배경만이 아닌 불교철학과 과학, 기술 등이 서로 유기적으로 망라된 대종합(大綜合)의 예술품임을 강조했다.

광수영박사(前 동국대 총장)는 종의 최정상에 한 마리의 용이 등에 커다란 원통(圓筒)을 짊어지고 고리 구슬로 조형된 것은 만파식적(萬波息跡)설화에서 보듯이 호국용으로 신적(神箭)을 삼아 정적(頂截)한 신라적 발상에 따른 것이

돌기 맑은소리 창출 **울림통** 지하영혼 위로
맥놀이 두 주파수 조화 멀리서 들을수 있게



부다피아 사이버 기행 불교세계

'불교세계'(The Buddhist World)는 인터넷을 통해 대만 불교계의 사회활동, 경전전산, 불교계 뉴스, 사찰소개 등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대만불교의 참모습을 알리는 사이트이다.

'불교세계'에서 제공하는 정보에는 대만불교·제식 요법 등 불교전산공덕회·불교자제공덕회·미국불교 등의 소식 등이다. 특히 이종에서 '공덕회'와 '불교자제기금회'가 가장 눈에 띄는 정보.

영어와 중국어로 각각 제공된 정보에는 대만불교계의 전산화 실태와 미국에 흩어져 있는 사찰의 소식을 전해 주고 있다. 또 여기에서는 최근부터 불교전자서적을 출판하고 있다. 지금까지 <대만선사> <불교교리> <십우도> 등이 전자출판된 네티즌의 방문을 기다리고 있다.

불교자제기금회에서는 대만에 본부를 둔 자제공덕회가

진행하고 있는 병민·학교·복지 등 다양한 활동에 대해 소개해 주고 있다. 자제공덕회는 대만불교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활동을 전개하는 불교재단으로 대만 국내·외에서 평가받고 있어 불자 네티즌이 한 번쯤 방문해 볼직하다.

이외에도 제식주의자를 위해 냉국수를 비롯해 9가지 제식에 관련된 요리법을 세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다. 또 대만 불교와 관련해 인터넷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 사이트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주고 있다. 여기에서는 웹사이트(인터넷 DVB/제공사), 호주국립대 등과 같은 웹서비스를 제공해주는 50여개 사이트와 20개 교과서 사이트 그리고 세계불교계의 신선한 뉴스를 제공하는 14개 사이트에 대해 링크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이 사이트 주소는 'http://dual.iems.nwu.edu/~cwshen/buddha.html'이다. <육>

전자서적 출판·대만불교 소개 논길

불교학 "세계·인류미래방향 제시해야"

권기종교수 '현대 한국불교의...' 서 주장

종교학 연구와 달리 진리성 추구 방법보다 인간·불성등 본질 접근



'지금까지의 불교학 연구는 근본 문제에 대한 접근보다는 그 방법이나 절차상의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갖는 오류를 범해왔다. 미래 불교학 연구는 이같은 문제점을 시정하지 않으면 안되며, 본질적 문제에 대한 접근과 함께 예상되는 인류사회의 제반 현실에 대해 확신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

제점을 크게 두가지로 설명했다. 불교사를 불교라는 협소한 테두리 안에서만 보려는 태도와 불교사가 정치사회의 한 영역인듯한 접근방식이 그것이다.

"팔만대장경 제작 지식인 참여했다"

김운곤교수 논문 발표

팔만대장경(국보 제 32호)은 하층계급인 각수(刻手)들에 의해서만 제작된 것이 아니라 당시 지식인들이 직접 제작에 참여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학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런 논문을 통해 학계에서는 처음으로 당시 지식인이 대장경 제작에 참여했음을 공식 제기했다. 이같은 주장의 토대는 동아대 석좌교수인 권기종교수가 소장하고있는 <금광명경(金光明經)>과 대승대교왕경(大乘大教王經)의 기록.



김교수는 위 두경에서 대장경의 제작활동에 당시 진사(進士)를 비롯한 문인지식층이 참가했다는 기록을 곳곳에서 찾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광명경>에는 1238~1239년 사

불사의 현장에서 함께 일하겠습니다

- 부처님 조성, 천불조성, 목탱화, 개금불사, 천불감실
- 내부장엄불사(수미단, 신중단, 영단, 달집...) 등등
- 불교 목공예품~ 법상, 경탁, 경상, 불전함, 목어, 호신인등, 연설대, 등등 목공예품 일체

대표 이진형 합장

불사의 전당 불교조각원 서울 종로구 견지동 81번지 2층 (조계사 건너편) ■사 무 실 (02) 738-8447~8 ■공 장 (051) 804-8907 ■부산사무실 (051) 556-0541~3